

Ⅲ. 北韓 動靜

1. 北韓의 新年辭 分析과 98年 南北韓 關係 展望

- (북한의 대내 정책) 기존의 정책에 큰 변화없이 군부의 주도 하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내부 체제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
- (북한의 대남 정책)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없이 남한의 정책 전환을 주장, 기존의 대남 정책이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음
- (남북 관계 전망)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여, 어느 한 쪽의 양보가 없는 한 올해도 남북관계의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

대내외 정책에
큰 변화없이
체제 고수에
주력할 듯

- (북한의 대내 정책) 기존의 정책에 큰 변화없이 올해에도 군부의 주도 하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내부 체제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
 - 올해 북한의 신년사(공동사설)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 원칙의 철저한 고수와 김일성의 유혼 관철을 거듭 강조하는 등 경제난 해소 및 개혁·개방과 관련된 새로운 대내외 정책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
 - 경제 분야에서는 식량 문제 해결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방안으로 종자 문제 해결, 이모작, 주체 농업 등을 역설하고 있음
 - 또 북한은 올해에도 군부 주도의 병영 국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
 - 신년사는 '모든 면에서 인민군대가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, 모든 당원과 주민들이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'해 줄 것을 역설하고 있음

먼저 남한의
정책 전환을
요구

- (북한의 대남 정책)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고 먼저 남한의 대북 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, 기존의 대남 정책이 쉽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음
 - 북한의 신년사는 단순히 정권 교체로는 변화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, 남한의 대북 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금후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함
 - 신년사는 이와 관련, 우리 정부에 대해 「反北 對決 政

策」을 「軟北 和解 政策」으로 바꾸고, 콘크리트 장벽 제거, 국가보안법 철폐, 안기부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음

- 그러나 북한이 남한의 정책 변화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김대중 당선자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북한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갖고 다소간 신축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
- 올해 북한 신년사의 대남 주장들은 향후 남북 관계를 새로이 설정해 나가는 데서 북한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됨
 - 올해 북한은 새로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과 대외 정책 및 대북 협상 행태 등을 먼저 탐색해 보고자 할 것으로 판단됨

남북 경협을 포함하여 남북 관계의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

- (남북 관계 전망)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,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올해도 남북관계의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
 - 4자 회담과 경수로 사업 등 다자간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, 적십자 회담 등 남북한의 쌍무적 접촉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, 올해 남북 정상 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 - 올해에도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되겠지만,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큰 폭의 규모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함
 -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지함으로써,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임
 - IMF 시대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남북 경협도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
 -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한계 기업의 대북 이전이 적극 모색될 가능성도 있지만, 외환 부족·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남북 교역, 임가공, 투자 협력 사업 등이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큼
 - 기업의 대북 투자도 시장 선점 방식이 아니라, 수익성 평가에 의한 접근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됨

(이태섭)